

다산포럼

노란 봄바람 저편에 흔들리는 완장 이미지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이제 무거운 코트를 벗고 걷는 출근길은 봄 구경 산책이기도 하다. 큰 가지에서 벗어나 가지개를 켜는 묵린 봉오리를 지나니 노란 꽃 잔치가 벌어진다. 도처에 늘어진 개나리 무리, 돌 틈새로 피어오르는 민들레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런 다양한 꽃들을 보라고 권하는 '봄'을 절감한다. 유독 노란빛이 이 봄엔 강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천 일 넘게 잠겨 있던 세월호가 서서히 올라와 진도에서 목포로 가는 여정이 노란빛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리라. 아파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항해하는 노란빛의 변화를 매일 목격하는 새로운 봄이다.

한편으로 노란 물결 저편에는 태극기 완장도 보인다. 연쇄반응일까? 완장 기호가 나뉘까는 영화들이 연이어 기억 세포

를 자극한다. 먼저 윤홍길의 소설을 각색한 '장마'(1979·유현목)가 떠올라 다시 보았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소년 동만의 시점을 따라가는 이 작품에선, 동만의 서울 외갓집이 시골 친가로 피난 내려가 같이 지내는 장마철 일상이 펼쳐진다.

'우르릉~ 광광~'하며 퍼붓는 장맛비 속에서 외할머니는 이가 빠지는 악몽을 꾸다. 이어 대나무 숲에서 지나다 국군으로 전전터에 나간 외아들의 전사 통보가 전해진다. 이 사건 후, "빨갱이는 다 죽으라"는 외할머니의 탄식을 접하며 피난처로 사립재를 내준 친할머니는 마음이 불편하다. 마을에서 완장 차고 의기양양해하다가 빨치산으로 떠난 둘째 아들에게 이 저주가 갈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피난처를 내주며 노친네끼리 서로 보듬고 잘 지내자던 호의는 돌변한다. 한쪽은 국군 아들, 다른 한쪽은 빨치산 아들을 둔 사돈 시간인 두 할머니는 서로 원망하며 종교적 주술에 의존한다.

빨치산 아들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예언을(그 어머니인) 친할머니만 믿는다. 아나니 다를까? 예언의 그 날, 커다란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온다. 구렁이를 아들의 혼령으로 여긴 친할머니는 실신해 버린다. 빨갱이를 저주했던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사돈의 아들로 대접하며, 머나먼 저승길 잘 가시라는 제의를 정성껏 수행한다.

두 손 모아 비는 외할머니의 소리를 멀리서 들은 친할머니는 그간 내뿜던 증오감을 후회하며 용서를 청한다. 전쟁의 광기가 만들어 낸 벽을 허무는 진정한 사과의 효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유신 말기 제작된 영화이기에, '반공영화' 체제가 풍기지만, 이런 결말은 현재진행형 역사 쓰기의 희망처럼 보인다.

'라콤 루시앙'(Lacombe Lucien, 1974, 루이 말도) 나치 치하를 배경으로 완장 심리를 해부해 낸다. 1944년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 라콤은 부모 없이 할머니와 외롭게 살며 레지스탕스가 되려는 욕망을 갖는다. 그러나 레지스탕스는 어디라는 이유로 그를 받아 주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곧 독일 경찰 그나폴이 되어 완장을 두른다. 권력자 무리에 들어선 그는 멋진 양복도 지어 입으려고 재단사 집에 갔다가 재단사의 딸 프랑스와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그러나 재단사와 그 딸은 유대인이기에 게토로 가는 기차에 타야만 한다. 패망 직전 나치의 절대 권력은 광기를 내뿜는다. 그 와중에 사랑을 위해 완장 심리로부터 탈주해야 하는 라콤의 갈등은 긴장감 넘치는 내면 심리 변화로 펼쳐진다.

심리 실험극인 '엑스페리먼트'(The Experiment, 2001·올리버 히르비젤)도 인간과 권력의 함수관계를 완장 코드로 펼쳐 보인다.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실험으로 톤 박사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된다. 이를 대신 변호표를 단 죄수 12인과 그들을 관리하는 간수 8인을 알바로 모집해 14일간 역할 수행 심리 구조를 CCTV로 관찰하는 것이다.

처음엔 시간 대비 큰돈을 버는 임시직이나 게임처럼 즐기자던 참여자들은 자신의 복장에 따른 권력에 몰들어 간다. 실험 2일, 3일~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연구자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위험한 권력 중독증을 보여 준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여기저기 욕망에 따라 순응해 버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일까?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77번은 환경에 순응하기보다 저항하는 태도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고 분투한다.

완장 권력에 주눅 들지 않는 그런 저항의 힘은 미약하게 시작되던 노란 물결의 희망에 공명해 준다. '홀로코스트' 영화가 주제작 장르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듯이, 절대 권력 욕망이 낳은 아픈 이야기는 이렇게 탐구 거리로 돌아와 새로운 봄을 보게 해 준다.

社說

저가증스럽고 뻔뻔한 전두환의 변명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은 살인자의 추악한 변명 그 자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간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시대적 상황"이 12·12와 5·17을 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같이 비난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정확히 대변한 말도 없을 듯하다.

이러는 "광주 시민을 권력의 제물로 삼은 인간이 감히 자신을 씻김굿의 제물이라 비유한 대목에선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과 기만은 용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달 중 출간 예정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언급하며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나에게 가져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5·18 특별법 및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광주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자신이 "정치적 책략의 희생물이 되어 투옥과 재산 몰수의 수난을 겪었다"며 느닷없이 언론을 탓하기도 했다.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기합리화를 꾀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일일이 논평한다는 것은 사실 지면이 아까울 정도이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총칼로 무참하게 짓밟은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서 이미 법정에서 군사내란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 누구였던가. 80년 광주의 한이 여전한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언·폭행 피해 건수는 배달청년 많더니

국내 배달 산업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들의 상달수가 인권 침해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역 청년 배달 노동자 5명 중 1명이 업무 중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성희롱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 210명을 대상으로 노동 조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배달 노동자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언 피해자를 보면 가해자가 고객인 경우가 전체의 65.5%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자(20.5%), 고용주(14%) 순이었다.

배달 노동자의 71.5%는 식사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을 만큼 근로조건이 열악했다. 또 고용주의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비율이 39.4%에 이르며, 초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

은 비율도 39.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60.8%에 달했다. 특히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83.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빠르다.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빠른 배송의 편리함이 자칫 인명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배달 노동자들의 32%가 배달 도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한 무리한 운전을 꼽았다.

배달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고용주들이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상당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물론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고객들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빨리'만을 외치지 않는 성숙한 문화가 요구된다.

기고

광주 하정웅미술관 개관에 부쳐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재일교포 사업가

지난 3월3일,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하정웅미술관이 개관했다. 개관기념전은 하정웅컬렉션 '이우환전'(3월3일~6월25일)이다. 이 감개무량한 경사가 있기까지 과정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다.

1992년 지방에선 처음으로 국립미술관으로서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했다. 그러나 의욕 넘치는 훌륭한 건물은 세워졌지만, 간판만 있을 뿐 미술관으로서의 내용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수장품은 150여 점으로 수장고는 이름뿐인 창고였다. 시의 예산과 미술관문화의 의식, 학예연구원 부족 등의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3년 강영기 광주시장과 차종갑 미

술관장으로부터 '미술관을 도와주고, 키워주고, 광주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내 미술 컬렉션의 기증을 부탁받았다.

1973년 처음으로 부모의 고향을 방문하고, 서울 창덕궁에 있는 한국 유일의 국립근대미술관을 견학했다. 그 건물은 영친왕과 이방자비가 거주했던 석조전 건물이며 수장품이 350여 점 밖에 없다는 것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라의 문화를 자랑하는 미술관의 내실이 텅없이 부족한 한국의 문화 실태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광주시립미술관의 요청에 응했다. 그동안 수집해 온 미술작품을 한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기증을 결심하고 광주시와 인연을 맺은 것이다. 사실 광주시와 인연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해에 재일교포 1세 화자 전화화 화업 50주년 개최 준비를 위해 광주시를 방문,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과의 만남에서 광주맹인복지협회 설립과 회관 건설의 발기인이 된 것이 그 인연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제1차(1993년) 212점의 기증을 시작으로, 제2차(1999년), 제3차

(2003년), 제4차(2010년), 제5차(2012년), 제6차(2014년)까지 총 2513점이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되었고, 나의 기증작품은 소장품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작품을 기증했다.' '이름을 팔아 명예욕과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재일교포라는 차별과 멸시, 편견에 의한 생각지도 못한 비난과 비방에 아프고 외로웠다. 하지만, 그후에도 나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기증을 계속해 왔다.

나의 기증 작품이 늘어나면서 수장고 가 부족해져 새롭게 미술관을 세우게 되었다. 그때, 광주시는 하정웅미술관을 독립해서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중외공원 내에 하정웅미술관 건립이 다시 계획되었지만 시장의 교체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만에 운장현 시장의 영단으로, 구도지사관사였던 역사적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하정웅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나의 좌우명은 '명력력 노당당'이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명백히 나쁜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르침이다.

1995년에는 광주시명예시민증을,

2001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종신명예관장의 위촉을 받았다. 그리고 광주시립미술관의 주요 전시회로서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은 매년 개최하게 되었고, 올해로 17회의 역사를 맞이하는 청년작가초대전은 지금까지 89명의 젊은 작가들을 배출했다.

2003년 광주시는 중외공원 내 1.2km를 하정웅 명예도로로 명명했다. 또한 인연을 이어온 광주시각장애인협회는 오는 4월26일, 설립 4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고 나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고 한다.

나는 많은 인내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광주시로부터 받은 이러한 은덕은 미술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빛을 비추면 그 빛은 나에게 반사되어 빛난다. 좋은 겨울을 건디고 나서야 아름다운 꽃이 핀다. 미술관 개관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나 자신이 도움을 받고, 키워지고,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좋은 정신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신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데카르트의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변함없이 지지해 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NGO 칼럼

대선 후보들에게 드리는 정책제안



이춘석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운영위원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고통의 계절마다 중병 앓이를 하며 보낸 지난 3년. 이제 는 햇빛 경선과 장미꽃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오월에 이른바 장미 전쟁이 시작되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어가고 본격적인 본선이 다가오고 있다. 촛불을 통해 이루어낸 대선인 만큼 국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더 깊이 고민하면서 대선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위해 당사자인 대통령 후보가 먼저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운명이

참 불행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망명길에 올랐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총탄에 쓰러졌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구속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서너가 구속되는 상황을 겪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임기를 마감하였으나, 아직 냉혹한 평가가 남아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다가 탈이 났었고, 비선과 측근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대통령 역시 구조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황의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축소에 나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 공약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나, 대통령 중임제, 또는 책임 총리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등 개헌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 집중의 권한 분산이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국가 최고

지도자들에게도 원활한 국가 통치의 길을 터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수도를 세종시로 하는 개헌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담아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 서울에 있고 일하는 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있는 상황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심각한 국가적 낭비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구나 분단 국가로서 전쟁이나 대지진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온다면 수도 서울은 마비와 혼돈에 빠질 것이다.

수도 이전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여러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대통령이 당선되어 내각이나 비서진이 구성되기 전, 즉 대선 전에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한 확실한 공약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수도와 청와대 이전은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이 골든타임이다.

셋째,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와 공약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많은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

데 개별화된 아파트의 특성상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어,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국 지자체 단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신유 아파트를 짓는 경우나 기존 아파트들이 아파트 1층 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려하거나, 건설업체에도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세워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아파트 1층 공간이 공동체 커뮤니티공간으로, 육아시설, 도서관, 공부방, 공예실 등으로 변해갈 때 자연스럽게 아파트 공동체 문화,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40여 일 남은 대선운동 기간이 대한민국의 축제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정책제안의 역력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국민도 미래 대한민국의 실체를 위한 아이나고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활력이 넘쳐나면 좋겠다. 온 국민이 고단한 시기를 거쳐 만든 소중한 대선 기간 동안 따사로운 봄 햇빛처럼 찬란한 정치문화를 다시 꽃피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無 等 鼓

“...과연 제바담 경성군(京城軍)이 이길 것인가, 그러치않으면 원래(遠來)의 평양군(平壤軍)이 이길 것인가. 금춘(今春) 추곡싸운 벽두(劈頭)의 일대 접전이 예상된다"고 한다.”(동아일보 1934년 4월 6일)

제2회 경성축구단 대 평양축구단 정기 축구전(경평 축구전)을 하루 앞두고 실린 신문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그 해 4월 6일 서울 정동 배재구장에서 열린 개막전에서는 원정팀 평양이 경성팀을 2대1로 이겼고, 7일 열린 2차전은 2 : 2 무승부로 끝났다.

한 해 전 10월, 평양 공설구장에서 열린 첫 대회는 개막전과 2차전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경평 축구전은 해방되고 이듬해인 1946년을 끝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38선이 그어지며 남북 왕래가 끊겨 버렸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치러진 경평 축구전은 단순히 경성과 평양 두 도시 간 대항전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민들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난 2013년 상영된 '60만 번의 트라이'(감독 박사유·박돈사)는 일본 오사카 조선 교고 럭비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노 사이드(No side) 정신'이다. 럭비는 서로 몸으로 맞부딪치는 거친 운동이다. 하지만 선수들은 경기 종료 후 네 편 내편 서로 편 가르침 없이 우리가 된다는 '노 사이드 정신'을 중시한다.

역사적인 남북 스포츠 대결이 잇따라 펼쳐진다. 6일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II 그룹 A' 대회에 참가한 북한팀과 경기를 벌인다. 또 7일에는 평양에서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북한팀과 '2018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예선전'을 치른다.

이번 강릉 대회에서 돋보이는 것은 남북 공동 응원단이다. 강원 도민들은 평양올림픽 성공 개최와 함께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남북 스포츠 경기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승부욕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품는 럭비의 '노 사이드 정신'일 것이다. 이번 경기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봄눈 녹듯 풀리길 기대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